

이정도면 족잖싸 아닙니까

KOSPI 6,627pt(-0.9%), KOSDAQ 812pt(+0.7%)

① 해외 사항 AI 속도조절론과 5% 금리에도 지수 낙폭은 제한

- 간밤 미국 주식시장은 AI 속도조절론과 유가, 금리 상승에 하락. 다우 -0.3%, S&P500 -0.5%, 나스닥 -0.6%.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9% 급락. 주요 AI 기업 경영진이 안전을 위한 개발속도 조절과 외부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AI Capex 둔화 우려 부각. 엔비디아 -3.4%, 마이크론 -5.3%, AMD -4.4%, 마벨테크 -7.3% 하락. 반면 AI 보안 수요 확대 기대에 클라우드스트라이크 +13.9%, 팔로알토 +13.1%, 서비스나우 +7.4%. 사우디 송유관 피격과 호르무즈해협 협상 연기에 브렌트유는 장중 110달러에 근접했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 상회. 다만 미국과 이란의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가와 금리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수도 낙폭 일부 회복. AI 속도조절론이 직접적인 매도 명분이었지만 유가와 금리 상승이 최근 상승폭이 컸던 고벨류 AI 인프라의 차익실현을 증폭시킨 하루

② 수급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들 기다리며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0.83조원, 기타법인 +1.64조원 순매수. 반면 외국인 -1.57조원, 기관 -0.91조원 순매도.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총 10.2조원 순매도한 반면 기타법인은 같은 기간 8.1조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2.5조원 가까이 매도했음에도 지수 낙폭이 1% 이내에 그쳤다는 점은 기타법인(자사주 매입)과 대기 매수세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 다만 외국인의 추세적인 복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

③ 특징업종 반도체는 버티고, 양자·보안으로 순환매

- 1) 반도체** :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5.9%, SK하이닉스 ADR -7.6%에도 삼성전자 -0.2%, SK하이닉스 -0.5%로 선방. 전일 삼성전자 -5.4%, SK하이닉스 -6.4% 급락하며 악재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고, 메모리 실적과 주주환원 기대가 하단을 지지. AI 속도조절론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등장했지만 국내 반도체의 실적 전망까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 삼성전자 특별배당 및 SK하이닉스 추가 주주환원 정책 발표 역시 다음달 예정되어 있음
- 2) 양자, 보안** : 한국첨단소재가 양자암호통신 핵심 광부품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미국 AI 속도조절 논쟁 이후 사이버보안과 AI 거버넌스 수요가 부각된 가운데 미국 CLARITY Act 절차표결 기대까지 겹치며 양자, 인증, 디지털자산 보안주로 매수세 확산. 중장기적 우호적 모멘텀인 이차전지(ESS)도 상승하며 코스닥 순환매에 가세

④ 이벤트 미·일 통화정책회의

- 1) 9월 FOMC(현지 9/15~16, 한국시간 9/17 오전 3시 결과 발표), 2)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9/18)

⑤ 상황 악재의 크기보다 줄어든 낙폭에 주목

- 금일 KOSPI -0.9%, KOSDAQ +0.7% 마감. 전일 불확실성을 선반영하며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했지만, 오늘은 미국 반도체주의 추가 급락에도 국내 대형주는 버티고 코스닥은 순환매가 나타난 모습. 전면적인 위험선호 회복은 아니지만 악재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낮아지기 시작
- 속도조절론) 이번 속도조절론은 AI 성능과 수요에 대한 의구심보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 제안 내용도 모델 훈련의 전면 중단보다 외부 검증과 안전조치 강화에 가까움.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을 감안하면 주요 기업이 동시에 개발을 멈출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며 동일한 논리로 트럼프도 해당 이슈를 강하게 비판. Astra 이후 확인된 AI의 업무 경제성 개선과 추론 수요 확대, 오픈라클 실적에서 나타난 클라우드 수요 역시 유효. 다만 안전 관련 규제가 실제로 이행되면 최첨단 모델의 출시와 신규 인프라 발주 시점은 늦어질 수 있음. 향후 확인할 것은 속도조절론 자체보다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수정과 주문 취소/이연 여부, 메모리 가

격과 이익 추정치 변화. 실질적으로 주문량 감소와 이익추정치 하향으로 연결될 확률은 낮다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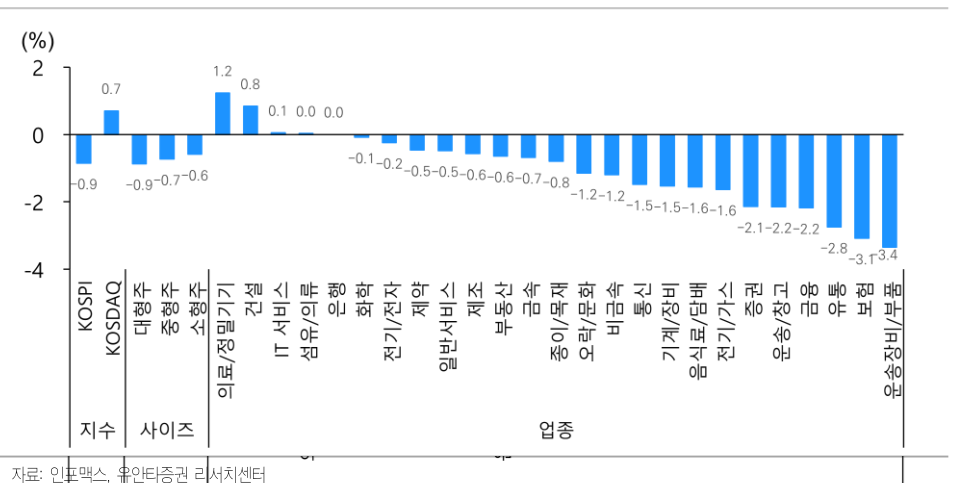
- 금리) 이번 금리인상 전망을 만든 직접적인 변수는 경기 과열보다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견조한 경기는 인상의 원인이라기보다 연준이 물가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여건에 가까움. 따라서 지정학적 갈등 완화와 공급 정상화로 유가가 하락한다면 추가 인상의 근거도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 이미 시장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인상 경로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유가 안정 시 시장금리는 상승보다 하락 위험이 더 큰 구간이라는 판단. 금리 인상에 대비해 누적된 포지션의 숏커버링까지 더해질 경우 금리 하락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 기업 실적이 유지되는 가운데 할인율만 낮아진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는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
- 전략) AI 속도조절론 역시 터보퀀트와 딥시크 등 그동안 반복됐던 AI 투자 노이즈와 본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는 판단. 다만 매크로 변수 속 외국인 매도 이어지는 만큼 매수 속도는 조절할 필요. 변동성을 활용하되 실제 주문과 가격 결정력, 이익 가시성이 확인되는 기업(1순위는 반도체 대형주)으로 압축 대응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6%와 미 10년물 국채금리 5%를 동시에 맞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악보합에 그쳤고 코스닥은 상승. 이 정도면 족지만 잘 싸웠다(졌잘싸)는 판단. 새로운 악재가 등장할 때마다 낙폭이 줄어드는 것은 시장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다는 신호. 실제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고,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서고, AI 관련 불확실성이 등장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점(9월 9일, 7,052pt) 이후 4거래일간 낙폭은 금일 증가 기준 6%에 불과. 이는 주식시장 과열 극심했던 7월 당시 일평균 등락률 수준. 변동성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이후 여전히 축소되었고 시장도 과열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경기침체보다 전쟁과 유가. 그만큼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될 경우 유가와 시장금리도 함께 내려갈 여지가 크다는 판단 다시 강조. 10월 초 삼성전자 잠정실적과 10월 말 SK하이닉스 실적, 삼성전자 특별배당과 SK하이닉스 추가 주주환원 정책까지 고려하면 이제는 아래보다 위를 볼 때라는 기존 판단 유지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9,110	1,116
외국인	-15,647	242
개인	8,322	-1,412
거래대금	162,454	60,899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